HappyAnd

2017년 03월 행복나눔재단 웹진 10호

1. 현장탐방 ‘&’(앤드)가 간다

아이들에게 아이언맨이 된 벤처 기업가

SIT(Social Innovators Table) 첫 번째 모임 – 기술 기반 소셜 벤처의 혁신 사례

지난 2월, 세상을 바꿔나가는 소셜 이노베이터들의 모임 SIT(Social Innovators Table)가 진행됐어요. IT 계열 소셜 벤처에 관심이 많은 저, &도 기대감을 안고 이번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누구보다 강렬하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올 소셜 이노베이터들의 만남과 함께하시죠!

SIT란? –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소셜 이노베이터들의 만남

SIT는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가는 소셜 이노베이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혁신은 작은 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SIT는 이 같은 사례를 발표하고 대담과 토론을 통해 공유하며,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서 사회 혁신의 외연을 확장해나가는 자리입니다.

**Focus1)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의 경계를 넘나들다**

사진설명 : (우측) 토도웍스의 심재신 대표님 발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와 인류의 전환점이 되는 사회 혁신들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많은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 보면 사회 혁신은 한 사람의 작은 아이디어부터 사회 제도의 개혁, 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계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최근에는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기술 혁신과 사회 혁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안고 참석한 SIT 첫 번째 모임에서는 토도웍스의 심재신 대표님이 발표자로 나서 작은 모터로 장애인들에게 자유를 선사한 사례를 공유해 주셨어요. 토도웍스는 수동휠체어에 장착 가능한 초경량 전동 키트, 토도 드라이브를 개발해 전동 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편의성을 향상시킨 소셜 벤처입니다.

<작은 모터 하나로 휠체어의 자유를 꿈꾸다>

카드뉴스

1장 :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휠체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비장애인은 이 둘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해요

사진설명 –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의 장단점 비교.

2장 : 제 딸의 친구는 몸이 불편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하지만 전동휠체어의 불편함 때문에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사진설명 – 전동휠체어

3장 : ‘가벼운 수동휠체어에 전동휠체어처럼 움직일 수 있는 모터를 달아준다면 좀 더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지 않을까?’

사진설명 –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의 결합

4장 : 제가 가진 작은 기술로 이 아이에게 자유를 선물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사진설명 – 토도드라이브를 개발 중인 심재신 대표

5장 : 그 결과 수동 및 전동휠체어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토도 드라이브가 탄생했습니다.

사진설명 – 토도드라이브를 적용한 휠체어

6장 : 이제 이 아이는 부모님과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토도웍스는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에게 평범한 일상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사진설명 – 여행

7장 : 우리는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진설명 – 토도웍스 로고

사진설명 : (좌측) 토도웍스 심재신 대표님과 ROA컨설팅 김진영 대표님 대담

작은 모터 하나로 한 아이의 삶을 변화시킨 심재신 대표님의 사례를 들으니,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마치 아이언맨이 되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서 진행된 대담 시간에는 기술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ROA컨설팅의 김진영 대표님이 심재신 대표님과 함께 대담을 진행하셨어요. 저도 궁금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질문해주셨습니다.

사진설명 : (좌) ROA컨설팅 김진영 대표님

사진설명 : (우) 토도웍스 심재신 대표님

Q1. 제가 생각하기에 토도웍스는 일반적인 사례와는 달리 심재신 대표님의 재능이 사업으로 연결된 독특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재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기업가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A1. 저는 사실 기업가보다 엔지니어에 가까운데요. 엔지니어로서 제가 만든 제품을 고객이 사용하고 만족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회사운영이라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의 연장선 같습니다.

Q2.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 기업가란 하고 싶은 일을 끈질기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다른 창업가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A2. 제가 회사를 운영해오면서 느낀 건 기업가는 제안서나 사업계획서보다는 제품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엔지니어 출신들은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군요. 제품으로 승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 기존의 양분화 되어있던 휠체어 시장에서 어떻게 전동 키트라는 솔루션을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청중의 질문도 있었어요. 심재신 대표님의 답변은 ‘문제에 집중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였는데요. 보호자가 들 수 없는 무게, 배터리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한 점 등 문제의 본질에 대해 끝없이 생각했고 배터리를 50개 이상 교체하며 테스트할 정도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일반 휠체어에 장착할 수 있고 배터리 착탈이 가능한 모터 드라이브라는 아이디어에서 제품 개발까지 가능했던 것이죠.

이날 토도웍스의 사례를 통해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 나가는지에 대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연한 관찰에서 시작된 기술이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해나가도록 돕는 과정을 경청하며, 하나의 기술 혁신이 사회에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했어요. 참석한 소셜 이노베이터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Focus1)사회 혁신을 위한 동반자를 만나다.**

사진설명 : (우측) 맛있는 저녁과 함께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

이번 모임에는 기술 기반 소셜 벤처 기업가 이외에도 투자자 및 육성가 등 각 분야에서 소셜 이노베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참석하셨어요. 발표와 대담에 이어서 준비된 네트워킹 시간에 저희는 함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는데요. 참석자들은 맛있는 저녁 식사가 준비된 테이블에 앉아 사회적 기업가 혹은 소셜 벤처 대표로서의 고민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조언도 함께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어요.

기업가와 투자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혁신을 통한 행복한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혁신의 파트너로서 현재 일어나는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업, 단체의 상호 협력을 통한 성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눴는데요.

진솔한 대화를 통해 신선한 자극과 영향을 나누고 향후 사회 혁신의 동반자로서 유대감을 쌓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설명 : 박비 모두다 대표

'모두다'는 발달장애인들이 게임을 직접 경험해보고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기업인데요. 토도웍스의 발표시간을 통해 저희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사진설명 : 박우범 위시켓 대표

소셜 임팩트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런 분들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대표님들께 연락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생긴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사진설명 : 박은호 끌림 이사

저는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심재신 대표님으로부터 창업가는 일상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과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진설명 : 서인식 넥스트이노베이션 대표

네트워킹 행사들이 많지만 대부분 주최 혹은 주관한 회사를 위한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행사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 진행된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사진설명 : 신준영 케어유 대표

저희와 같이 기술 기반의 소셜 벤처를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 신선한 자극을 얻었고 업계에서 앞서나가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하며 개선해야 할 사항과 방향성을 되짚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 요소에 있어서 시간은 결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아도 혁신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SIT는 때로는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때로는 느슨한 네트워킹 자리를 통해 사회 혁신을 향한 동력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며 소셜 이노베이터들의 혁신의 시도에 용기를 북돋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HappyAnd 독자 여러분도 SIT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려요.

2. 특별취재

무한함에 도전하는 작은 영웅들

제3회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졸업식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해 2012년 SK그룹과 KAIST가 함께 개설한 ‘KAIST 사회적기업가 MBA(이하 SE MBA)’가 지난 2월 18일 어느덧 세 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

SE MBA 는 KAIST 경영대학의 경영교육과 사회적 기업 창업에 특화된 교육과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결합한 과정이다.

제3회 졸업생 12명은 전원이 소셜 벤처 및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활약할 예정이다.

2년 전일 과정이기 때문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졸업생들. 그들에게 졸업은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이고 행복하지만 고된 여정의 첫 발걸음이다.

**12명의 쏌바, 그들은 누구인가**

SE MBA과정의 학생들과 교수진은 스스로를 ‘쎔바’라고 부른다. SE MBA를 붙여서 부르는 ‘쎔바’라는 애칭은 어느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과 같이 사회라는 정글 속에서 아직은 어린 사자의 느낌을 준다. 쎔바들이 활약하는 사회적 기업의 분야는 실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의 틈새를 절묘하게 공략하는 젊음이 돋보인다.

사진설명 : 코어스토리 로고

코어스토리 / 김선민

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

홈페이지 / 페이스북 링크

사진설명 : 겜브릿지 로고

겜브릿지 / 도민석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게임화 하여 모바일,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의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지원 홈페이지 / 페이스북 링크

사진설명 : 달빛영화사 로고

달빛영화사 / 배원정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며, 이면의 진실을 밝히는 장•단편 영상물 제작

사진설명 : 클로젯 로고

클로젯 / 성주희

재화의 합리적 소비 및 패션 폐기물 감소를 위한 월정액 패션 가방 렌탈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 페이스북 링크

사진설명 : 라잇루트 로고

라잇루트 / 신민정

신진디자이너 소득 개선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제품 마케팅 및 유통지원 플랫폼 운영

홈페이지 / 페이스북 링크

사진설명 : 마리테이블 로고

마리테이블 / 양순모

소외계층 고용창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온라인 취미 클래스와 취미 소품 DIY키트 결합•판매

홈페이지 / 페이스북 링크

사진설명 : 살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로고

살림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 유여원

3차 의료기관 중심의 건강관리 및 건강주도성 확립을 위한 협동통합의료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 페이스북 링크

사진설명 : 도플 로고

도플 / 오예환(2기)

유명인사 활용을 통한 비영리단체 모금/홍보 플랫폼 운영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링크

사진설명 : 체인지 그라운드 로고

체인지 그라운드 / 이웅구

사회적 경제 온라인 컨텐츠 제작 및 보도, 사업체 마케팅/홍보 활동 지원

페이스북 링크

사진설명 : 마노컴퍼니 로고

마노컴퍼니 / 이유미

어린이 공감능력 향상을 통한 공동체 생활능력 증진 제품•서비스 개발

홈페이지 / 페이스북 링크

사진설명 : 어스맨 로고

어스맨 / 최희진

개도국 생산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윤리적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무역 제품 중개 판매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링크

사진설명 : 한국사회투자 로고

한국사회투자 / 박정원

사회적 기업 및 소셜벤처 자금 유통 담당

홈페이지 / 페이스북 링크

**사회적기업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SE MBA**

SE MBA는 1~5기까지 사회적기업가 정신, 소셜미션, 비즈니스 모델 등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총 95명을 선발해왔다. 1~3기는 총 49명이 졸업했고, 졸업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거나 Scale-up(규모 확대)에 성공했다. 창업률은 93%에 육박하며, 투자 유치 금액도 15억원에 달한다. 이는 SE MBA가 우수인재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창업단계별로 제공하는 교육•창업•투자 등 맞춤형 육성 커리큘럼의 우수성을 증명한다.

이번 3회 졸업생도 92%가 창업을 했고, 창업자 중 33%가 임팩트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졸업생들은 졸업 이후에도 SE MBA 동문으로서 SK의 다양한 사회적기업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체결된 SK-KAIST MOU 2기를 기점으로 향후 2021년까지 SE MBA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에 기반한 사회적기업가 인재양성 교육을 타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 3회 졸업생 현활 그래프

-창업 92% (신규창업 9명 / 기 창업 후, Scale-up 2명 / 사회적경제전문가 Track(한국사회투자) 1명)

-임팩트 투자 33%(4명 – 달빛영화사(배원정) / 클로젯(성주희) / 마리테이블(양순모) / 살림의료복지협동조합(유여원)

\*졸업자 12명 기준

3회 졸업생과 1문 1답

사진 설명 : 이웅구(체인지 그라운드 대표)

Q. 졸업 소감 - 학교를 떠나는 게 너무나 아쉬워요.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KAIST 경영대학의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열람실에서, 인큐베이팅 센터에 앉아있던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떠나기 싫은데, 벌써부터 그리워지네요.

Q. SE MBA를 선택한 계기 - 저는 SE MBA 진학 전 사회적 경제에 대해 공부를 했고, 유럽에서 더 공부하기 위해 국비유학을 지원했었습니다. 만약 합격했다면 지금도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고 있었을 겁니다. 국비유학에서 떨어진 후 창업가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현장과 유리될 수 없고, 언젠가는 현장에 꼭 부딪쳐 보고 싶었거든요.

Q. SE MBA 과정을 통해 얻은 것 - 두 달에 한 번씩 사업계획서를 발표하는 수업이 가장 도움됐어요. 수업시간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실제 사업현장에서 구현해 보고 느낀 점들을 더해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수업이었는데요, 학우들,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통해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Q. 사회적기업가로서 향후 계획 및 포부 -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최고의 홍보 마케팅 기업이 될 것입니다. 현재 체인지그라운드의 페이스북 기준 구독자가 11만 명인데요, 올해 2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매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 : 양순모(마리테이블 대표)

Q. 졸업 소감 - 상투적이고 다소 거창한 이야기지만, 졸업이 참 믿기지가 않아요. 학업과 사업을 병행하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덕분에 얻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Q. SE MBA를 선택한 계기 - 가장 주요한 이유는 ‘자영업을 벗어나고, 소셜벤처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뜻이 좋은 회사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정말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기업, 누군가의 삶에 진심으로 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게 됐죠.

Q. SE MBA 과정을 통해 얻은 것 - 크게 두 가지에요. 첫째, 제 담당 멘토이셨던 조성주 교수님과의 멘토링을 통해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었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덕분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둘째,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회사와 함께 했던 IR과정이었습니다.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정의하며, 이 사업이 투자자, 고객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돌아보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Q. 사회적기업가로서 향후 계획 및 포부 -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우리 회사를 통해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진 설명 : 최희진(어스맨 대표)

Q. 졸업 소감 - 지난 2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걱정도 되지만 본격적으로 실전의 밀림에 들어가려니 설레는 마음도 큽니다.

Q. SE MBA를 선택한 계기 - 예전에 큰 조직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기도 했지만 어스맨을 창업하고 나니 경영자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경영자로서 역량을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MBA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진학하게 되었어요.

Q. SE MBA 과정을 통해 얻은 것 - 사회적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는 수업에서부터 사회적기업가 정신, 소셜벤처를 설계하는 수업들도 있었지만 마케팅, 재무회계, 조직관리, 경영통계와 같이 일반 경영에 대한 과정들도 골고루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시기별로 회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맞추어 해당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수업 직후에 바로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Q. 사회적기업가로서 향후 계획 및 포부 - 국내 공정무역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무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공정무역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두 마리 토끼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가로 꾸준히 성장하고 싶어요.

이날 졸업식은 졸업생과 재학생, 최광철 SK그룹 SUPEX추구협의회 사회공헌위원장과 이병태 교수를 비롯한 SE MBA 교수진, 그리고 SK그룹 관계자와 졸업생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격려를 주고받는 뜻 깊은 행사로 진행되었다. 그들이 지나온 과정과 선후배들의 축하인사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면서 ‘힘들었지만, 그래서 너무나 좋았던’ 2년 간의 과정을 추억했다.

최광철 위원장은 “여러분들에게는 Passion(열정), Mission(소명), Vision(꿈), Innovation(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Sympathy(공감)를 넘어서는 Compassion(동감)이란 단어가 어울린다.”고 말하며 “사회적 기업은 양극화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돈을 벌고,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2~30년을 길게 내다 보고 기업가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했다. 힘들 때마다 첫 시작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재미있는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진심을 담아 격려했다.

SK사회적기업가센터장인 이병태 교수의 애정 어린 축사도 이어졌다. “사회적 기업을 한다는 것은 ‘주당 40시간 회사에 매여 일하기 싫어 주당 80시간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무모한 짓’이라는 정의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라톤 풀코스를 26번 완주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이보다 더 힘들었을 과정을 견뎌낸 우리 졸업생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늘 잔소리만 해대는 교수였지만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불태우는 여러분들이 그 동안 내심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설명 : 졸업생 / 최광철 위원장 / 꽃다발 / 이병태 교수

이제 12명의 쎔바는 치열한 경쟁이 난무하는 정글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며, 생태계를 바꿔나갈 것이다.

앞으로 계속될 SE MBA의 작은 사자들의 도전적이지만 행복한 여정을 우리 모두 기대해 보자.

사진 설명 : 졸업생 단체사진

3. 행복에세이

다가오는 인공 지능, 로봇 세상에서 인간의 행복

글: ‘한양대학교 융합시스템학과 ’ 산학협력중점교수 한재권

올해 들어 유독 주변에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올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이 언급된 이래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사회적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혁명’ 이라는 말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기술의 본질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변화, 그리고 後**

기술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사실 기술은 언제나 발전하며 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키는 존재입니다. 단지 기술의 변화가 사회를 너무 급격하게 바꾸는 경우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정도에 따라 인간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 왔고 고통 받는 사람들과 고통 받는 사회가 생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술의 변화를 선점한 사람은 우월한 기술을 이용하여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열강들이 지배했던 19세기와 20세기에는 그 정도가 심하여 우월한 기술을 가진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를 식민지로 만들고 식민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독 국가라는 가치에 열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겠지만, 만약 우리가 18세기말에 쇄국정책을 하지 않고 서양의 발전된 기술을 빨리 받아 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유교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 뒤처졌을 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받아야 할 고통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진설명 : 한재권 교수

**자본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지배**

사진설명 : 로봇을 조립 중인 한재권 교수

20세기 세계 대전의 잔인함을 경험한 인류는 다시는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UN을 중심으로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었고 더 이상은 제국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제국은 사라졌지만 기술의 선점을 통한 지배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지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갈등은 새로운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단 사람들 사이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 간에도 그 문제는 확장되어 적용됩니다.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자본을 가져가는 형태는 새로운 국가 헤게모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기술 발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배를 경험했던 우리 사회는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때의 부작용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독 기술의 국가 경쟁 순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 주목 받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은 이런 국가간 헤게모니 싸움의 전위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공 지능 로봇 기술이 충분히 발전했을 경우의 그 파급 효과가 상상이상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리고 시장 장악 측면에서 우월한 인공 지능 로봇 기술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차이는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차이입니다.

\*헤게모니: 우두머리의 자리에서 전체를 이끌거나 주동할 수 있는 권력

**인공지능 로봇, 유토피아적 상상**

사진설명 : (우상단) 수상 후 기뻐하는 연구팀 / (좌하단) 로봇 기술을 설명 중인 한재권 교수

한 국가의 군대는 로봇이고 다른 국가의 군대는 인간이라면 그 전쟁은 하나 마나입니다.

손자병법에서도 최고의 승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해 왔던 사회의 모든 개념을 변화 시킬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인류가 귀족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세상.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거나 원한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더 이상 육체노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삶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중세시대의 귀족은 그러한 삶을 누렸습니다. 노예들이 필요한 일을 대신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된 현대에서 돈이 많은 자본가들이 귀족과 비슷한 삶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우리 사회에서 예전의 귀족과 똑같은 삶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 지능 로봇이 예전의 노예의 역할을 해준다면 인간은 모두 귀족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인공 지능 로봇이 만들어 낼 유토피아적 상상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 주목!**

하지만 과연 그런 세상이 가능할까요? 저 같이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성공 확률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로봇을 만들 주체는 주로 기업일 터인데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인공지능 로봇의 생산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인공 지능 로봇이 만들어낼 막대한 생산력과 부가가치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이때 소외될 인간 노동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비관론만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노동력의 수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만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이지 인공 지능 로봇으로 인해 노동력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가정을 도입하면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올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받아들일 제도이고 문화이며 윤리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기술 발전과 궤를 같이해서 제도를 수정하고 문화를 바꾸며 새로운 윤리의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인공 지능 로봇 기술이 가져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로봇 기술이라는 ‘손가락’이 아니라 제도, 문화, 윤리의 인문학적 성찰이라는 ‘달’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설명 : 로봇

**인공 지능 로봇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체제**

사진 설명 : (좌측) 로봇 / (우측) 차량을 운전 중인 로봇과 파이팅을 하는 연구팀

최근 EU의회에서 결의한 인공 지능 로봇에 ‘전자 인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세상을 좋게 만들려는 노력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게 ‘법인’의 개념을 만들어 권리를 부여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듯이 ‘전인’의 개념을 만들면 로봇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여러 장치들의 시작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많은 상상력과 보다 많은 새로운 개념의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인공 지능 로봇의 발전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세상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체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화는 어떤 형태일까요? 우리는 어떤 새로운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문구에 현혹되기 보다는 새로운 기술과 함께할 새로운 인문학적 사고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4. The Social Innovators

이 시대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IT 아웃소싱 생태계를 변화시키다

위시켓 박우범 대표

이전에 없던 새로운 플랫폼으로 IT 아웃소싱 생태계를 바꿔나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의 IT프로젝트와 개발회사, 프리랜서 등 IT 전문인력을 연결하는 온라인 아웃소싱 플랫폼 위시켓입니다.

사진설명 : 위시켓 로고

어떻게 시작됐을까?

위시켓의 박우범 대표는 대학 졸업 후 사업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경제력과 시간적 여유를 모두 가지고 싶었어요. 포털 사이트에 ‘사업’을 검색한 것이 첫 시작일 정도로 무지했지만 도전해보자 싶었죠.”

사진설명 : 초보 사업가 일러스트

무엇이 문제였을까?

사업초기, 대출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비용으로 웹 사이트 외주개발을 진행했지만 납기일을 훌쩍 지나고도 불완전한 결과물을 받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진설명 : 우는 사업가 일러스트

이처럼 대표적 레몬마켓인 IT 아웃소싱 시장에는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불안전한 계약

-상호 정보의 부족

-갑의 횡포

..등등등

\*레몬마켓 : 시고 맛없는 과일인 레몬만 있는 시장이란 뜻으로 미국인들이 중고차 시장을 빗대 표현하면서 나온 말

사진설명 : 불안전한 계약, 상호 정보의 부족, 갑의 횡포를 표현한 일러스트

박우범 대표는 다짐했습니다.

정보 불균형이 만연한 이 시장을 뜯어 고쳐보자!

사진설명 : 고민하는 박우범 대표

어떻게 해결할까?

위시켓은 3가지에 집중합니다.

-어디서 찾아야 돼? : 모집 공고를 통한 신속한 연결

-어떻게 믿고 계약해? : 안전한 계약을 위한 대금보호 시스템 도입

-실력 어떻게 검증해? : 개발회사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제공

사진설명 : 사업가 일러스트

이제, 많은 기업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IT 외주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315 클라이언트 기업

-29,603 개발회사/프리랜서

사진설명 : 사업가 둘이 악수 나누는 일러스트

무엇을 준비할까?

박우범 대표는 두 가지 가능성을 통해

향후 아웃소싱 시장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전망합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중ㅁ의 IT 기술 발달

-둘째, 일과 삶 중에서 삶이 주도하는 업무 환경

사진설명 : 그래프

이런 환경 속에서 위시켓은 IT 아웃소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시스템의 개선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기때문입니다.

“위시켓은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IT 아웃소싱 시장이 변화하면

인류는 한 걸음 진일보한다고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수익을 내는

지속 성장의 동력을 가진 회사로 발전하겠습니다.”

대표 박우범

사진설명 : 박우범 대표

5. 행복뉴스

**SK SUNNY 2017 리더그룹 수료/임명식**

블로그 링크

**행복한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정기총회 개최**

행복한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 2월 21일 행복나눔재단 사옥에서 첫 정기총회를 열었다. 조합은 방과후학교 교육 콘텐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 이를 통한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지난해 설립됐다.

이날 조합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교육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CI(Cooperate Identity) ‘CLASS FACTORY’를 발표했다. 또한, 조합 운영 및 사업 방향을 담은 2017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제휴 효율성 및 강사 역량 제고를 통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 ▲ 자유 학기제 및 캠프 운영 및 교재•교구를 유통하는 신규 수익사업 발굴 등의 추진 내용을 조합원들과 공유했다. 향후 조합은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9개의 조합원들과 함께 교육 콘텐츠 생산∙공급∙소비 체계를 현실화하여 사업 및 조합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행복도시락, 신규 브랜드 ‘더(THE) 행복한 도시락’ 출시**

행복도시락이 바쁜 현대인들의 영양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더(THE)행복한 도시락'을 출시했다. 행복도시락은 지금까지 영양 취약 계층인 결식이웃에게 맛과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아이들의 성장 발달 및 어르신들의 건강을 돕기 위해 단백질,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생선과 비타민, 무기질이 가득한 채소 등 제철 식재료를 적극 활용한 저염, 저당식 메뉴로 공공급식 도시락을 구성해왔다.

'더(THE) 행복한 도시락'은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렴하고 빠르게 한 끼를 때웠던 직장인들의 균형있는 영양 섭취를 돕기 위해 출시됐다. 또한 도시락 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국내결식문제해결과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사용된다. 한편, 행복도시락은 '더(THE) 행복한 도시락' 출시 기념 이벤트를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문은 30인분이상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670-6100)를 통해 가능하다.

**행복ALLIANCE, ‘세상에서 가장 긴 협약서’ 캠페인에 3만 명 참여**

민간 사회공헌 연합체 ‘행복ALLIANCE’가 아동 건강 및 정서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 ‘세상에서 가장 긴 협약서’ 캠페인에 3만 명 이상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캠페인은 온라인 서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의 수만큼 아동에게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형식으로, 소비자와 함께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복ALLIANCE는 이 같은 성과와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향후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더 많은 아동들을 지원하는 2차 캠페인을 준비할 계획이다.

**임팩트 투자 기업 '에코맘의산골이유식', 후속투자 유치**

행복나눔재단 ‘제 2회 세상 임팩트 투자 공모전’의 투자 기업으로 선정되었던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이하 에코맘)이 5억 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에코맘은 하동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이유식을 제조·유통하여 지역 소농가의 소득 증대를 돕는 기업이다.

2015년 10월 행복나눔재단 임팩트 투자를 통해 이유식 제조 공정 설비를 확충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하고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왔다. 에코맘은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사회적기업투자펀드에 이어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의 ECO-MGI 6차산업 전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MG인베스트먼트’와 ‘에코캐피탈’로부터 총 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금은 해외 수출을 위한 연구 개발과 시장 개척 비용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SK 프로보노, 글로벌 프로보노(GPBS) 총회 참가**

SK 프로보노는 지난 3 월 7 일부터 4 일 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 5 회 ‘글로벌 프로보노 총회(Global Pro Bono Summit)’에 참가했다. 글로벌 프로보노 총회는 매년, 세계 최대규모의 프로보노 서비스 연계기관인 ‘탭룻 재단(Taproot Foundation)’이 주관하고, 사회혁신가 양성 사업을 실행하는 ‘BMW 재단’의 후원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총회는 ‘세계가 당면한 어려움에 맞서는 프로보노 서비스 기획(Mapping Pro Bono Service to Tackle the World's Challenges)‘을 주제로 우수사례 공유 및 현지 사회적 경제 기관 방문, 교류 워크숍, 글로벌 네트워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SK프로보노는 이번 총회에 참가한 국내외 다양한 프로보노 운영기관들과 협력•연대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사회적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내 대표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SK 뉴스쿨, 2017 신입생 선발**

푸드(Food) 분야의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SK 뉴스쿨이 2017년도 신입생을 선발했다. 이번 신입생은 서류 전형과 1차 면접, 예비과정, 최종면접까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조리학과(Culinary) 21명, 서비스학과(F&B Service) 12명 등 총 33명이 선발됐다.

SK 뉴스쿨은 입학식을 시작으로 국내 최고의 셰프 및 F&B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학과별 전문교육과 인문예술교육을 포함한 기초과정, 현장실습 등의 커리큘럼을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입학식은 3월 2일, SK 뉴스쿨 전용 교육장이 있는 행복나눔재단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신입생들은 새학기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6. 나누는 이벤트

No1. Event

&가 간다 댓글 남기고, 아름다운 커피 선물세트 받자!

이벤트 기간 : 2017년 3월 26일까지

참여방법

STEP. 1 현장탐방 ‘&’가 간다 SOCIAL INNOVATORS TABLE편을 보고,

STEP. 2 ① 내가 생각하는 사회혁신을 댓글로 써서 공유하고, ② 공유한 SNS주소를 남기면 끝!

STEP. 3 팝업창 안내에 따라 연락처 남기고 선물세트 받자!

No 2. Event

HappyAnd 포스트 팔로우하고! 아메리카노 받자!

이벤트 기간 2017년 3월26일까지

참여방법

STEP. 1 포스트 팔로우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STEP. 2 (네이버) HappyAnd 포스트를 팔로우한 후,

STEP. 3 HappyAnd 포스트에 댓글을 남기면 응모완료!

STEP. 4 추첨을 통해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이벤트 주의사항

-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품 계획 변경 시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 상품 발송 및 안내에 필요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는 당첨자 개별 연락을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으신 분은 당첨자 연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개인정보를 안내해 주시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 상품은 중복 지급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판매를 금지합니다.